

제2차 사이공조약과 阮朝의 카톨릭 대책

윤 대 영*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제2차 사이공조약과 카톨릭 문제의 격화
- III. 阮朝의 제2차 사이공조약 제9조 운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베트남의 식민지화는 阮朝가 제1차 사이공조약(일명 壬戌條約, 1862.5)과 제2차 사이공조약(일명 甲戌條約, 1874.1)을 체결하여 남부 6省의 할양과 카톨릭 선교의 자유 등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토의 할양 외에도 카톨릭 문제가 阮朝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는 阮朝의 카톨릭 탄압을 베트남 공격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했고,¹⁾ 영토를 상실한 阮朝는 失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카톨릭 보호 대책을 계속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사이공조약에 의한 阮朝의 카톨릭 대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 17세기초부터 시작되어 점차 프랑스 선교사들이 주도한 베트남 선교는 유교적인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阮朝의 제2대 황제인 明命帝(Minh Mang, 1820-1841) 시기부터 전례 문제와 반란 개입 등을 이유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은 대내적으로는 文紳이 주동이 된 비카톨릭교도의 전례없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외적으로는 북부의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프랑스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했던 阮朝의 자구책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베트남의 카톨릭 문제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 통일 이전 카톨릭 신자였던 남부의 연구자들이 교회와 선교사를 서구 기독교 문명의 대표로 간주하면서, 阮朝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교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는 교회사학의 입장에서 시작되었다(Phan Phát Huôn 1958). 그러나 당시 외세의 침략에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북부의 연구자들은 다만 嗣德帝(Tự Đức, 1847-1883) 시기 외세의 침략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민중적' 용전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외침을 끌어들이고 외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카톨릭교도를 타도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Đặng Huy Vãn 1968.7). 그리고 나폴레옹 3세(Napoléon III, 1852-1870) 시기 해외 선교 열망과 결합된 프랑스의 식민지 팽창 욕구가 발현되는 베트남 식민지화 과정에서 카톨릭교의 초기 선구적인 역할, 이후 프랑스 식민당국과 카톨릭 세력(프랑스 본국의 신부들, 베트남의 프랑스 선교사들, 베트남인 教徒) 양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 양상, 그리고 식민지 동화정책을 위한 카톨릭 선교의 유용성 등에 주목하는 연구 등으로 확장되었다(Cady 1967; Vo Duc Hanh 1969; Lê 1975; Cao Huy Thuần 1990; Brocheux 1995).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베트남 민중의 반카톨릭운동, 그리고 프랑스 식민당국과 선교사들의 관계 및 식민지 정책의 기본 방향 등에 각각 착안하여 카톨릭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阮朝의 입장에 기초한 접근은 아직 미흡하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가 주로 프랑스 정부 혹은 선교사들의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阮朝의 공식적인 자료(예를 들면, 『大南寔錄正編』)를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하여 阮朝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²⁾

2) 프랑스 학계의 경우에는 베트남 통일 이전 프랑스 연구자들이나 베트남 남부의 연구자들이 후에에서 『大南寔錄正編』(이하 『寔錄』으로 약칭)의 일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보관하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고 단지 자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정도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맥레오드(Mark W. McLeod)와 같은 연구자가 프랑스측의 자료뿐만 아니라 『寔錄』에서도 카톨릭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阮朝의 카톨릭 탄압이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을 야기한 구실이 되었다는 점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카톨릭 문제를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초기 상황에 국한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1·2차 사이공조약 체결 이후 阮朝의 對佛 관계 변화로 인해 등장한 카톨릭 대책의 특수성과 다각적인 측면을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과 베트남 국내의 반발에 대한 阮朝의 대응이란 구도속에서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1·2차 조약에 의한 阮朝의 카톨릭 대책이 야기한 베트남 국내 위기의 심각성과 阮朝의 극복 노력을 嗣德帝 정권의 입장과 제세력(카톨릭 세력, 文紳이 중심이 된 베트남인 非敎道 그리고 프랑스 식민당국과 본국)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탄압 일변도의 카톨릭 대책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阮朝의 우회적인 카톨릭 제어 노력에도 아직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阮朝의 카톨릭 탄압이 프랑스 침략의 구실이 되었다'는 것에서 논의를 확대하여 국내의 위기를 초래한 카톨릭 문제에 대한 阮朝의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제2차 사이공조약 체결 시기를 전후로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2차 사이공조약을 전후로 북부에서도 프랑스 식민당국의 무력을 경험한 阮朝의 한층 고조된 대외위기감은 남부 6省의 상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내부적으로 카톨릭교도에게로 집중된 베트남 민중들의 더욱 거센 저항을 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1차 사이공조약으로 탄압 일변도의 카톨릭 대책에서 ① 카톨릭교도의 종교 자유와 ② 그에 대한 우회적인 제어라는 양면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했던 阮朝 카톨릭 대책의 이중적인 성격이 제2차 사이공조약 제9조의 시행 과정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제2차 사이공조약과 카톨릭 문제의 격화

1. 가르니에사건

있다. 그러나 阮朝의 카톨릭 대책을 바라보는 입장은 프랑스에 대한 阮朝의 협조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경향이 강하다(McLeod 1991).

제2차 사이공조약의 체결 배경에는 중국 서남부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프랑스의 통킹 지역 추가 점령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르니에(Francis Garnier)사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를 점령한 목적 중의 하나는 영국이 버마를 통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메콩강을 통해 중국의 雲南과 티벳에까지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메콩강 탐험대가 조사한 결과 이 강은 통행에 부적당하며 그보다는 오히려 통킹의 紅河를 통해 雲南에 이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프랑스는 다시 통킹델타 지방을 정복하여 紅河를 지배할 야심을 품게 되었고 1874년부터 줄곧 베트남 북부에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무력과 외교적인 압력을 함께 사용했다(Nguyễn Thế Anh 1970, 79-80; Roberts 1929, vol. 1, 442; Harrison 1968, 200).

1873년 중국의 프랑스 무역상 뒤뵈(Jean Dupuis)가 阮朝와 충돌한 사건은 사이공총독 뒤쁘레(M. J. Dupré)가 통킹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뒤쁘레는 중국 상해에 있던 가르니에에게 뒤뵈사건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기는 동시에 프랑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회를 보아 무력 개입을 해도 좋다는 언질도 해주었다(Steinberg et al., 1985, 187-188; SarDesai 1989, 123). 하노이(Hà Nội)에 도착한 가르니에는 뒤뵈 문제를 협상하던 중에 돌연히 紅河의 개방을 제기했으나 阮朝 관리들의 적극적인 저지로 紅河를 개방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가르니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으로 1873년 10월 하노이城을 함락시켰다. 嗣德帝는 뒤쁘레에게 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고, 가르니에에게는 하노이城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르니에는 이것을 거부하고 하노이에 이어서 하이즈엉(Hải Du'ong), 닝빙(Ninh Binh), 그리고 남딩(Nam Định)을 계속 점령해 나갔다(Steinberg et al., 1985, 188; SarDesai 1989, 124).

이 과정에서 阮朝와 프랑스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阮朝로서는 우선 가르니에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북부의 4성(하노이성, 하이즈엉성, 닝빙성, 남딩성)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프랑스로서는 紅河를 개방하여 통상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사이공으로 파견되었던 阮朝의 全權사신들은 가르니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뒤쁘레 제독의 요구를 수락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르렀

다. 뒤쁘레도 阮朝에게 자신이 가르니에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표명하고 가르니에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르니에는 전사했다(『寔錄』 第四紀, 卷49, 24b-26a).

결국 양국은 1874년 1월 제2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阮朝는 남부의 6성에 대한 프랑스의 완전한 주권 인정, 阮朝의 대외정책이 프랑스의 정책에 부응하도록 할 것, 프랑스의 국익에 위반되는 조약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지 않을 것, 통상을 위한 紅河의 개방, 프랑스 영사관 설치 등을 약속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 군함과 무기의 제공, 군사교관·기술자·재정전문가 교수 등의 파견, 제1차 사이공조약에 규정된 전쟁배상금의 면제 등을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후술할 바와 같이 제9조에서 카톨릭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했다(『寔錄』 第四紀, 卷49, 26b-27b, 32a-35a; 卷50, 3a, 5a, 6a, 7b-14b).

이 때 카톨릭 문제가 재차 阮朝에게 어려운 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선 북부를 공략하기 전 프랑스 식민당국의 통킹 작전 계획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뒤쁘레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카톨릭 세력과의 접촉 및 그들의 지원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다(Tuck 1987, 134). 더군다나 프랑스 본국은 통킹 원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Buttinger 1972, 93) 통킹지역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³⁾ 뒤쁘레는 가르니에의 통킹 원정에 선교사들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베트남 教徒의 신앙 자유를 위한 모든 장애를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Tuck 1987, 143).⁴⁾ 때문에 뒤쁘레는 가르니에가 선교사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는 것과 상황에 따라 阮朝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내비치기도 했다(McLeod 1991, 108). 이러한 노력의 성공으로 뒤쁘레는 가르니에를 통킹으로 파견할 때 이미 주교들에게 가르니에의 임무를 통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원도 요구할 수 있었다(Taboulet 1955, 707).⁵⁾

3) 프랑스 본국은 普佛戰爭에서의 패배, 나폴레옹 3세의 실각, 1870년 파리 교편의 성립 및 뒤이은 내란 등으로 해외식민지 확장에 관심을 보일 겨를이 없었다.

4) 이 과정에서 뒤쁘레는 꼴롱베르 주교에게 2차 조약에 포함될 카톨릭 조항의 세부적인 사항도 미리 작성하게 했다(Tuck 1987, 167-168).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교도가 가르니에의 작전에 보인 태도이다.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톡킹에 상륙한 가르니에는 하노이를 공격할 때 군대와 행정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그들은 모두 6000명 정도였는데, 그중 1000명 정도가 教徒였다. 가르니에가 점령 지역의 행정이나 군사 활동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집한 사람들중에서 教徒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教徒가 가르니에 군대에게 협력한 방식은 공식적인 루트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첩보 활동, 후방 관리, 선박 연료의 공급, 보급 물자 운송, 통역, 阮朝 관리의 추격 등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의 숫자를 더 크게 잡아야 할 것이다 (McLeod 1991, 114-118).⁶⁾ 톡킹 델타의 현지 사정을 몰랐던 소규모의 가르니에 부대가 빠른 시일 내에 북부의 4省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教徒가 각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Trần Văn Giàu 1973, 352-353).

카톨릭교도는 가르니에 군대의 작전수행 과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르니에 군대도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가르니에 군대는 教徒가 “강도” 혹은 “반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즉결처형하기도 했지만, 사실 “강도” 혹은 “반도”는 이전에 각지에서 教徒에게 경미한 손실을 입혔거나 과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르니에 군대는 점령한 성채에서 약탈한 물품을 教徒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教徒를 직접 그 약탈에 참가시키기도 했다 (McLeod 1991, 116, 118-119). 베트남인들의 촌락을 공격할 때는 선교사가 앞장 서서 불교 사원이나 사당도 동시에 공격하곤 했는데, 타인호아 (Thanh Hóa) 三壘山에 있던 崇山祠의 祭器를 약탈한 것은 祠堂에 대한 공격과 약탈 행위가 동시에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寔錄』 第四紀, 卷49, 37a). 이처럼 非教徒에 대한 教徒의 보복 행위가 점차 심해졌다. 그런데 이것은 북부 4省을 점령하여 阮朝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프랑스군 원래의 원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프랑스 원정군측에서도

5) 뒤쁘레가 가르니에에게 밝힌 선교사들의 지원형태는 정보 제공, 사이공과의 연락 수단 마련, 그리고 군사활동을 위한 재정 마련 등이었다.

6) 하노이城 공격 이후에도 각성에서 다시 보충하여 14,000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2000명이 教徒였다 (Phan Phát Huồn 1958, 363).

그러한 행동을 저지하고자 할 정도였다(Tuck 1987, 153-154).⁷⁾

결국 가르니에사건에서의 프랑스군과 教徒의 협력 및 教徒의 非教徒 보복 등의 양상은 프랑스 식민당국이 제2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하여 북부의 4省을 阮朝에게 반환하고 군대마저 철수해 버리자 카톨릭 문제가 다시 베트남에서 심각하게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다.

2. 文紳의 반발과 阮朝의 대응

프랑스군이 철수한 이후 북부의 4省을 회복하여 일단 안정을 찾은 阮朝가 아직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존재해 오다가 가르니에사건으로 증폭된 非教徒와 教徒 상호간의 반감과 적대적인 감정 및 북부 4省 지역에서 文紳들이 중심이 된 非教徒의 教徒 공격 등이었다(『寔錄』 第四紀, 卷 49, 43a, 46b; Tuck 1987, 154-159, 179).⁸⁾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뒤쁘레 총독에게 지원을 요청했던 남딩의 뉘지니에 주교(Mgr Puginier)에 의하면, 阮朝의 관리들과 文紳들은 教徒가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프랑스'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모든 지역이 教徒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Taboulet 1955, 731-732). 또한 남딩에서 아르망이 阮朝 퇴직 관리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프랑스인들 모두가 教徒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득한 것이 그들을 매우 의아하게 만들었던 것을 본다면, 당시 베트남인들이 教徒에게 가졌던 일반적인 관념은 프랑스인들은 모두 教徒이고, 카톨릭교를 믿는 베트남인들도 카톨릭교를 매개로 프랑스를 베트남에 끌어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카톨릭교는 프랑스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教徒는 조국의 배신자였다(Tuck 1987, 154; Đ

7) 당시 남딩을 담당하고 있던 아르망(Dr Harmand)도 "카톨릭교도들이 프랑스군의 도착을 복수의 날로 생각해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따라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카톨릭교도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들은 이곳에 종교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상을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거듭 설명해야 했다(Taboulet 1955, 707).

8) 이러한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는데, 여기에는 阮朝의 관리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결합한 경우도 있었다.

Quang Hu'ng 1990, 58; Lê 1975, 82). 때문에 뻘지니에가 당시의 위기 상황이 남딩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소규모의 군대만이라도 주둔시켜 教徒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Taboulet 1955, 732).⁹⁾

그래서 嗣德帝는 즉시 조칙을 발표하여 모든 사람들은 教徒의 여부에 상관 없이 서로 평안하게 지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가르니에사건 당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모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폭동에 관련된 사람들도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어기는 자는 처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寔錄』 第四紀, 卷49, 44a). 제2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嗣德帝가 각 지역에 密諭를 주어 2개월 내에 非教徒와 教徒와의 일들을 깨끗이 처리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던 것을 보아도, 카톨릭 문제의 처리가 당시 嗣德帝의 가장 큰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寔錄』 第四紀, 卷50, 5b).¹⁰⁾

그러나 阮朝의 기본 방침은 프랑스와 협력한 사람들 혹은 教徒에게는 관대한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阮朝의 지시를 어긴 사람들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教徒에 대한 阮朝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의 요구와는 부합될 수 없었다(『寔錄』 第四紀, 卷49, 47a). 게다가 2차 조약의 협상을 맡은 프랑스 식민당국측의 필라스트르(P. L. F. Philastre)는 教徒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냉담했다. 만약 또 프랑스가 개입한다면 폭동의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그는 가르니에의 젊은 동료들, 뒤뻬 그리고 뻘지니에 주교의 비난을 무시하면서 통킹 철수를 지시했다. 다만 통킹에서 가르니에에게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그 보장 조치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Tuck 1987, 155-156, 160; Taboulet 1955, 736-737).¹¹⁾

9) 실제 프랑스 주둔군이 떠난 이후 400개 정도의 카톨릭 촌락들이 방화되었다. 이 중에는 가르니에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촌락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Taboulet 1955, 736).

10) 이것은 후술할 2차 조약의 제9조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2차 조약의 체결로 카톨릭 조항이 더욱 강화되자, 阮朝는 非教徒의 教徒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 당시 가르니에와 밀접한 친분을 맺고 있던 프랑스 관리들은 모두 필라스트르가 阮朝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기까지 했다(『寔錄』 第四紀, 卷49,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非教徒가 教徒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사이공조약 체결 이전부터 북부 4省 각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불만은 조약 체결 이후 예안(Nghê An)과 하명(Hà Tĩnh), 그리고 광병(Quảng Bình)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文紳의 亂으로 폭발했다.¹²⁾ 이 文紳의 亂이 기존의 반카톨릭운동과 달리 阮朝의 특별한 경계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카톨릭교도에 대한 文紳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 외에도, 폭동 공간의 확대, 폭동의 조직적 양상, 폭동에 참가했던 文紳들의 태도 변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文紳의 亂이 가르니에사건이 일어났던 4省의 톡킹 델타 지역을 넘어 광범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유는 우선 阮朝가 톡킹 델타 지역에 비해서 가르니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예안과 같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예안 지역의 특수성이다. 예안 지역은 북부에서도 많은 文紳들을 배출한 곳 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고티에 주교(Mgr Gauthier)의 선교 활동이 활발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Tru'ông Bá Cấn 1991, 69, 141). 따라서 가르니에사건을 계기로 文紳들이 카톨릭 타도를 통한 抗佛운동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은 쉽게 형성되었다.

당시 文紳들은 문생고리 관계를 통한 文人들의 지원, 평민들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 및 그들에 대한 경제생활 보장 등을 통해 이미 2천명의 지휘관과 7만명의 정예병을 모집한 상태였다(Tuck 1987, 182; Bùi Đình Phong-Đỗ Quang Hùng 1988, 50, 52).¹³⁾ 그리고 각지 유력자들(하명省의 경우는

42b). 그러나 필라스트르는 카톨릭교도를 희생시켜서라도 홍하 유역에 통상을 개시하는 것을 확보하고자 했던 뒤쁘레 총독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한 것 뿐이었다 (Taboulet 1955, 737).

- 12) 주동자였던 陳璿과 鄧如梅는 2차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예안에서 教徒를 공격하여 이미 3000명의 教徒를 살해하고 115개의 카톨릭 촌락을 파괴했다. 阮朝는 이 폭동을 속히 진압하기 위해 타인호아와 예안의 관군을 폭동 지역으로 파견했다(『憲錄』第四紀, 卷50, 6b-7a; Tuck 1987, 180).
- 13) 文紳들과 평민들과의 친숙함은 陳璿과 鄧如梅를 강력하게 후원했던 陳光浣을 평민들이 陳光浣의 장녀였던 리우(Liu)의 이름을 이용하여 "리우대장"이라고 불렀던 것에

陳氏와 胡氏)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수송선 준비, 무기 제조, 코끼리부대 조직, 군대 훈련 등의 군사 활동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Đào Từ Minh-Đinh Xuân Lâm 1975.11·12, 70-71).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예안에 이르자 文紳들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즉각적인 행동에 착수할 수 있었다(Tsuboi 1987, 183).

게다가 阮朝가 예안의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은 폭동에 참가한 文紳들의 행동양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폭동에 참가했던 文紳들 사이에 유행하던 맹세가 “教徒와 함께 사는 수모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의 눈밖에 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었다(Tuck 1987, 181). 이처럼 教徒의 공격에 있어서 阮朝의 명령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文紳들은 조정에 청원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阮朝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는 文紳들의 태도는 抗佛 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阮朝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¹⁴⁾

따라서 阮朝는 2차 조약의 이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文紳의 亂을 진압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그 해 2월까지 10,000여명의 教徒를 살해하면서 진행된 文紳의 亂은 1874년 6월에 이르러서야 진압되었다. 阮朝는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스린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주모자들을 모두 처형했다.¹⁵⁾ 阮朝는 文紳의 亂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폭동 초기에는 고티에 주교의 요청으로 銀 1000兩을 지급하여 教徒를 구제했어도, 고티에 주교가 자위를 목적으로 教徒의 무장을 요구했을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寔錄』 第四紀, 卷50, 18ab). 그러나 폭동이 점점 수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자, 阮朝는 지

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Đào Từ Minh-Đinh Xuân Lâm 1975.11·12, 69).

- 14) 당시 文紳들의 일부는 張登桂가 紹治帝의 妃와 간통하여 낳은 아들이 嗣德帝이므로, “嘉隆帝 3代 후에, 張氏가 황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민요를 평민들에게 전파시키기도 했다(Đào Từ Minh-Đinh Xuân Lâm 1975.11·12, 80). 이러한 상황은 점점 기존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반왕조적인 성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Marr 1971, 40).
- 15) 자세한 사항은 『寔錄』 第四紀, 卷50, 20a-21a, 27a, 28b-29a, 30ab, 42ab; 卷51, 5a, 11a-13a, 16b-17a., 22b, 37b, 40ab; 卷52, 11a 참조.

방관들이 현지의 教徒와도 동맹하여 폭동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을 정도였다(Tuck 1987, 180, 185).

제2차 사이공조약에서 남부 6省에 대한 권리를 프랑스에게 양도함으로써 1862년과 1867년에 걸쳐 발생한 영토의 상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阮朝가 톤킨 지역 및 예안, 하명, 그리고 팡빙의 폭동을 진압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도 더욱 심각해진 국내의 위기를 가능하면 빨리 넘겨서 대외위기가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다(Truong Buu Lam 1967, 106). 게다가 2차 조약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카톨릭 조항이 더욱 확충되었기 때문에 카톨릭 관련 사항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프랑스가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실을 줄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와 선교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던 카톨릭 조항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Ⅲ. 阮朝의 제2차 사이공조약 제9조 운용

阮朝가 일단 조정과 文紳의 亂을 진압한 이후 가장 중시했던 문제는 제2차 사이공조약의 이행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톨릭 조항은 프랑스 식민당국이 그 내용을 확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阮朝도 특별히 신경써야 했다. 2차 조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어떤 조항들보다도 카톨릭 조항이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었고 또한 양국에게 큰 어려움과 논쟁을 야기했다는 것만 보아도, 카톨릭 조항은 여전히 양국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였다(Tuck 1987, 190).

阮朝가 프랑스의 요구대로 카톨릭 조항 모두를 선뜻 받아들인다면 그 내용으로 볼 때 조정과 文紳들을 포함한 국내의 큰 반발을 살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프랑스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¹⁶⁾ 즉

16) 阮朝는 제2차 사이공조약의 카톨릭 조항을 반포하여 모든 베트남인들에게 알려야 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반응을 걱정한 阮朝는 공포할 것을 꺼리다가,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을 포함한 프랑스의 불만을 누그러뜨림으로써 더 이상의 침략 구실을 주지 않아야 했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불만과 저항도 막아야 했다. 阮朝가 카톨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의 프랑스와 내부의 베트남인들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카톨릭 문제를 처리하는 阮朝의 입장은 조정 내부의 치열한 자구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1. 카톨릭 조항의 확충

우선 제2차 사이공조약에서 카톨릭 조항을 담고 있는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카톨릭 탄압 조칙을 철회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②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教徒의 숫자 제한을 철폐. 教徒는 자신의 종교와 반대되는 어떠한 행동도 강요받을 수 없고, 특수한 호구조사(冊籍)를 받지 않음. 教徒도 관직을 보유할 수 있는데, 教法을 어기게 해서 안됨.
- ③ 教徒를 감시하기 위한 教徒의 인구조사 기록(別冊)을 폐지. 병역, 요역, 과세, 簿籍을 非教徒와 평등하게 할 것. 언어 및 편지와 공문서에 카톨릭교를 모욕하는 字句가 있어서는 안되고, 「聖訓十條」에 이러한 字句가 있으면 개정할 것.
- ④ 프랑스 주교와 사제는 사이공총독의 통행증과 베트남의 禮部 혹은 省 總督의 통행증을 얻기만 하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선교할 수 있음. 각 鄉村은 선교사들의 행적을 더이상 일일이 관청에 보고하지 말 것.
- ⑤ 베트남 사제가 笞刑 혹은 杖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錢으로 代贖하고 笞杖을 시행해서는 안됨.
- ⑥ 사제들은 田土를 임대하거나 구입하여, 교회 및 교회 관련 부속건물,

관리들의 거센 항의로 발표했다(Le 1975, 188).

고아원, 병원을 지을 수 있음.

- ⑦ 이전에 教徒가 종교상의 이유로 家産을 압수당한 경우, 지금 그 家産이 官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마땅히 돌려주지만 이미 처분되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음.
- ⑧ 이상의 각 사항들을 스페인 선교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베트남인 모두에게 알려야 함.¹⁷⁾

이 조항들은 제1차 사이공조약의 카톨릭 조항을 단순히 보충한 것을 넘어 서서, 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체결한 것보다도 광범위한 보장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¹⁸⁾ 즉, 당시까지 발생한 모든 카톨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양국의 합의에 의해 제도적으로 구비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하는 阮朝의 태도와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면, 당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阮朝의 기본적인 방침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禁敎의 철회와 종교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와 집회 참석자들의 인원 제한 철폐, 병역, 요역, 과세, 簿籍에 있어서의 평등, 토지조매권의 인정 등은 阮朝가 2차 조약 제9조를 통해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보충한 측면이다.

2차 조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文紳의 亂으로 피해를 당한 教徒가 제출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사건이었다. 阮朝는 “教徒가 이전의 잘못으로 수감되었거나 分插되어 家産을 압수당한 경우에, 지금 만약 그 家産이 官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마땅히 돌려주고, 만약 이미 처분되었거나 官의 소유가 아니면

17) 제2차 사이공조약의 9조 내용은 『寔錄』 第四紀, 卷50, 10ab, 『中法戰爭(一)』, 382 - 383, Taboulet 1955, 745 등을 상호 비교하면서 참조했고, 세부 항목의 분류는 중국측의 자료에 의거했음.

18) 제1차 사이공조약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은 大南國(베트남)에서 天主教를 행하고(設行),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는 자는 또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종교 자유의 원칙만을 마련해 두고 있었을 뿐이다(『寔錄』 第四紀, 卷28, 18b). 프랑스에서는 가르니에사건이 ‘종교전쟁’이었다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선교사들의 정치적·경제적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Tuck 1987, 171-172)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그만이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教徒가 非教徒와의 충돌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후술할 것처럼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약의 범위를 넘으면서까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教徒의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阮朝뿐만 아니라 프랑스 식민당국에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

예안과 하명의 카톨릭교도가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阮朝로서는 教徒와 文紳 양자가 모두 그 사건에 책임이 있고 모두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教徒만이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文紳들도 教徒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寔錄』 第四紀, 卷 52, 8b; 卷53, 30a-31b; Tuck 1987, 185). 그러나 阮朝는 프랑스 식민당국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教徒의 요구를 비판만 하면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教徒의 불만이 확대되어 文紳들과 재차 충돌하는 경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嗣德帝도 “公私의 비용을 할당하여 구제하고자 했으므로 그 노력과 비용 또한 이미 대단하다”라고 한 것처럼, 실제 阮朝가 새로 개간한 광범한 지역을 非教徒에게 피해를 입은 카톨릭 선교단에게 제공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베트남인들이 방기한 토지도 教徒의 끈질긴 요구로 그들에게 양도하거나 폭동에 관련된 베트남 범죄자들의 재산도 압수하여 배상에 보탬다(嗣德帝, “處分商舶承天府臣諭”, 『聖製文三集』, 卷1, 18ab, 이하 『文集』으로 약칭; Tru'ông Vinh Ký 1982, 25; Tuck 1987, 187).²⁰⁾ 여기에서 阮朝 자신이 개간한 토지를 선교단에게 준 것은 教徒와 文紳들 양자의 반응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阮朝가 폭동의 당사자였던 文紳들의 재산으로 教徒의 손해배상에 충당

19) 1858년 이후 프랑스의 베트남 공격에 직접 협력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카톨릭 교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阮朝가 채택한 分插정책은 2-3개의 카톨릭 가정을 함께 묶어 다른 비카톨릭 촌락으로 이주시킨 조치였다(『寔錄』 第四紀, 卷20, 29b-30b).

20) 남당의 동자인 선교단이 보유하고 있던 413畝의 토지중에서 300畝 정도가 1872년 阮朝가 개간한 토지였다. 필라스트르가 阮朝의 배상 노력과 그 액수를 평가하면서 “범죄자들의 재산만으로 배상했다면, 거의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의 배상은 嗣德帝가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사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阮朝의 공공 재산도 많이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고자 했다면, 다시 文紳들의 불만을 일으킬 요소가 있었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教徒의 불만도 무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阮朝가 개간한 토지로 배상함으로써 이중의 안정적인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선교사들이 소송에 개입하면서 프랑스 공사 레이나르(P. Rheinart)를 통해 阮朝에게 가한 압력이었다(『寔錄』 第四紀, 卷53, 32ab; 卷54, 22ab; McLeod 1997, 39). 고티에 주교는 거의 300만 프랑에 이르는 완전한 배상을 요구했다. 원래 배상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폭동에 책임이 있던 촌락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까지의 배상액만으로도 배상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배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식민당국은 다시 한번 폭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다(Tuck 1987, 187-188).²¹⁾

따라서 阮朝는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야 했다. 2차 조약에서 소송문제를 다룬 16조에서는 선교사들이 베트남 教徒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876년 9월 「平教民叫訴例」 정하여 선교사들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강력히 대처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非教徒와 教徒가 부당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으면, 우선 總理와 縣衙, 府와 省, 마지막으로 法司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하급기관에서 점차 상급기관으로 재판을 올리도록 했고, 선교사들이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教唆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들의 피해를 막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겠다는 것도 명확히 밝혔다(『寔錄』 第四紀, 卷50, 12b-13a; 卷56, 3ab).

프랑스 식민당국도 선교사들의 배상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뿌지니에 주교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阮朝의 입장을 지지했다(Tuck 1987, 189-191). 阮朝도 사이공총독으로부터 선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1878년 3월 광찌(Quảng Trị) 春和社의 사제 黎印이 이미 결정된 소송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教徒를 教唆하여 관청을 위협했을 때,

21) 阮朝의 배상 조치에 반발하여 촌락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McLeod 1997, 69-70).

阮朝는 「教唆律」에 따라 黎印을 심문하여 笞刑 백 대와 流刑을 판결했고, 다른 教徒가 黎印의 納贖을 청했을 때도 불허했다(『寔錄』 第四紀, 卷59, 18b). 이것은 2차 조약에서 베트남 사제가 笞杖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면 규정에 의해 錢으로 代贖하고 笞杖을 실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阮朝가 무시한 사례이지만, 프랑스 당국도 소송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阮朝의 이러한 행위를 특별히 문제로 삼지는 않았다.

2. 제9조 이행의 한계

이처럼 阮朝는 프랑스 식민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2차 조약의 제9조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선교사들의 내지 진출이나 베트남 教徒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우가 달랐다. 1차 조약 이후부터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베트남 內地 왕래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阮朝는 선교사들 및 그들과 연결된 教徒의 활동이 阮朝 및 각지의 非教徒와 직접 마찰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尹大榮 1998, 21-23, 26).

2차 조약에서는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阮朝는 이전처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²²⁾ 2차 조약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선교단들의 불평이 없어졌고, 또한 카톨릭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Tuck 1987, 193, 308), 阮朝가 적어도 이전처럼 프랑스 선교사들의 자유왕래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베트남 지역사회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신청했을 때나 혹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동부 코친차이나 지역, 북부 코친차이나 지역, 그리고 서부 톤킨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 것을 신청했을 때 阮朝는 그 요청을 모두 수락했다(『寔錄』 第四紀, 卷51, 3a; 卷67, 6b).

그러나 阮朝는 선교사들의 선교 이외의 활동과 베트남 教徒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원래 하노이에 거주하던 뿌지니에 주교가 타

22) 이러한 양상은 『寔錄』 第四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사이공조약 이후 시기에는 선교사들의 내지왕래로 지방관들 혹은 조정이 선교사들과 충돌하는 내용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호아省으로 가서 教徒를 대신하여 分插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教徒를 原籍으로 회복시켜 非教徒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公田에서 神祠나 佛寺를 위해서 할당된 토지도 마찬가지로 教徒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종교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公田을 둘러싼 教徒와 非教徒(특히 文紳)의 지분 싸움은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阮朝는 주교가 타인호아에 간 것은 오로지 선교를 위한 것이므로 民政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 거부해 버렸다(『寔錄』 第四紀, 卷55, 39b-40b).²³⁾

『寔錄』 第四紀에는 1876년 3월 사이공 사람으로 프랑스의 督學 張永記가 타인호아에서부터 남딩과 닝빙으로 遊學博物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寔錄』 第四紀, 卷55, 10a). 張永記에 관한 언급은 1864년 4월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阮朝가 阮有培등을 사이공으로 파견하여 張永記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게 한다는 내용이었다(『寔錄』 第四紀, 卷38, 20b).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張永記에 대한 이전의 기록은 阮朝의 외국어학습 정책을 설명한 것이지만, 이후의 기록은 張永記 자신의 개인적인 遊學博物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阮朝의 공식적인 정책 수행과는 특별한 관련을 언뜻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寔錄』 第四紀에는 사이공총독과 프랑스 公使의 행적 및 그 임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프랑스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관한 것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사적인 행적이라든가 張永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유학박물을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寔錄』 第四紀에서 베트남 남부 학자의 개인적인 유람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과 관련하여 示唆點을 줄 수 있는 것은 견문과 학문을 위해 베트남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규정인 2차 조약의 15조이다. 즉, 프랑스인이 베트남의 어떤 곳에 가서 학문을 목적으로 博物을 원한다면, 阮朝의 관리가 반드시 그를 보호해 주고, 또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편하게 여행하면서 공부할

23) 嗣德帝 시기의 公田은 원래 그것을 국가와 촌락의 중간에서 관리하던 지역사회의 紳豪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紳豪들은 선교사들의 公田 요구를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로 받아들였다(酒井いずみ 1977, 74-77; 尹大榮 1998, 25).

수 있도록 하고 있다(『寔錄』第四紀, 卷50, 12ab). 조약에서는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이즈영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張永記도 베트남 북부를 여행할 초기부터(하이즈영-하노이) 阮朝의 호위를 받았다(Tru'ong Vinh Ky 1982, 122).²⁴⁾

張永記는 카톨릭 가정에서 성장했고,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도 서구의 학문을 풍부하게 연구한 教徒였다. 불어에 능통했던 그는 1863년 阮朝가 서구로 사절을 파견할 때에도 통역으로 활동했다. 1872년에 이르러서는 쩌린(Chợ Lớn) 행정위원회의 요직까지 맡았기 때문에 1876년 북부로 여행을 할 당시에 이미 그는 유명인사였다(Tru'ong Vinh Ky 1982, 6-12). 張永記에게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阮朝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張永記의 북부 내지여행을 단순한 여행으로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張永記는 여행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여행의 목적이 상감 기술자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각지를 관광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카톨릭 문제, 조정 내부의 개혁 세력과 최고위층 관리들과의 갈등, 북부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이용 가능성, 프랑스 영사 당국과 阮朝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阮朝 內政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Tru'ong Vinh Ky 1982, 123-125). 張永記의 이러한 활동을 염려하고 있던 阮朝는 2차 조약의 제15조를 張永記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여행 과정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張永記의 여정을 통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내지 왕래를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阮朝가 프랑스 식민당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베트남 教徒의 베트남 內地 진출을 우회적으로 감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차 조약의 제9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阮朝가 수용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聖訓十條」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 教徒에 대한 명칭 문제, 그리고 教徒에게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길

24) 이 보고서에 의하면, 張永記를 정중하게 대접한 하이즈영省 총독 范富庶가 신년 행사를 이유로 가능하면 張永記를 하이즈영에 좀더 오래 묶어 두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을 보장하는 것 등이었다(Tuck 1987, 176-177).²⁵⁾ 결국 阮朝가 그 내용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것들을 충실히 수행했는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聖訓十條」는 베트남인들이 教徒가 되는 것을 각 지역사회에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尹大榮 1998, 20). 또한 教徒가 관리가 되었을 경우 阮朝에게도 거북한 존재였고, 현직 관리나 관리를 지망하던 文紳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阮朝는 「聖訓十條」의 '崇正學' 내용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聖訓十條」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암송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프랑스측의 레이나라가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2차 조약의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레이나라 자신도 인정한 것처럼, 阮朝가 지역사회에 조약의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聖訓十條」에서 카톨릭교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고쳐서 모든 촌락들에게 알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Lê 1975, 188-189).

1874년 10월 레이나라가 教徒의 호칭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阮朝는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다. 이전에는 非教徒를 '良民'으로 칭하고 教徒를 '莠民' 혹은 '左道'로 칭하다가, 禁教 철회 이후 '莠'와 '左'를 없애고 '道'라는 글자만으로 지칭했었다. 그런데 레이나라는 '良·道'를 병칭하는 것도 教徒를 여전히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阮文祥은 두 글자의 뜻을 풀이하면서 레이나라와 논쟁을 벌였다. 阮文祥의 견해에 의하면, '良'이라는 것은 항상 분수를 지키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道'라는 것은 사람에게 善을 권하고 邪僻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두 글자는 의미도 비슷하고 결코 美惡을 내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道'를 '道'라고 칭할 수 밖에 없고 '良'도 '良'으로 밖에

25) 「聖訓十條」는 카톨릭교도 레반코이(Lê Văn Khôi)의 반란을 진압한 후인 1834년 明命帝가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崇正學'은 카톨릭교를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國史遺編』, 242-244; Trần Trọng Kim 1992, 322) 移風易俗을 위해 발표한 「聖訓十條」의 내용은 ① 敦人倫, ② 正心術, ③ 務本業, ④ 尙節儉, ⑤ 厚風俗, ⑥ 訓弟子, ⑦ 崇正學, ⑧ 戒淫蕩, ⑨ 慎法守, ⑩ 廣善行 등이었다. 여기에서 '崇正學'은 올바르지 아니한 邪說을 중지시키고, 비뚤어져 공평하지 못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행동을 멈추게 하고, 淫辭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레이나르도 카톨릭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義民'이나 '德民'으로 칭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阮文祥이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나르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결국 教徒를 '教民'으로 칭하고 '良民'도 '平民'으로 개칭할 것으로 결정했다(『寔錄』 第四紀, 卷52, 10b-11a).

원래 '道民'이라는 용어는 '爺蘇道', '邪道' 혹은 '左道'라는 말에 '民'을 첨가하여 '사악한' 카톨릭교를 믿지 않는 '선량한' 베트남인들을 의미하는 '良民'이라는 용어와 대비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阮文祥은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긍정적인 '道'의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여 '道民'이라는 용어가 教徒를 모욕하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레이나르의 요구를 거부했다.²⁶⁾ 결국 타협책으로 '良民'을 '平民'으로 바꿈으로써 非教徒와 教徒를 지칭하는 용어에 포함된 정반대의 관념을 상대적으로 희석시켰다. 그러나 '教民'이라는 용어도 결국은 '道' 대신에 카톨릭교를 지칭하던 '爺蘇教' 혹은 '邪教'의 '教'로 대치한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처럼 '教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教徒를 非教徒와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教徒를 '義民'이나 '德民'으로 지칭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教徒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教民'으로 확정할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嗣德帝 자신이었지만, 이후에도 嗣德帝는 '道民'이란 표현을 여전히 사용했다(嗣德帝, 「處分商舶承天府臣諭」, 『文集』, 卷1, 16a).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教徒에게 과거를 통해 관직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운용 과정의 실상을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만은 판단할 수 없는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阮朝가 教徒의 관리 진출을 인정함으로써 教徒가 阮朝 조정내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阮朝 내부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그 이전에도 통역, 번역, 행정 실무, 군사 활동 등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 원래 嘉隆帝 시기에는 각종의 신령과 종교, 불교 및 카톨릭교가 사람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폐해를 만들어 냈을 때 그러한 종교들을 모두 '左道'로 지칭했으나, 明命帝와 紹治帝 시기를 거치면서 '左道'는 카톨릭교에만 국한하여 사용했고, 嗣德帝 시기도 같은 취지에서 '左道'라는 표현을 사용했다(『寔錄』 第一紀, 卷23, 9b-11b).

(『寔錄』 第四紀, 卷21, 13a; 卷26, 3b-4a; 卷34, 27b, 35b-36a; 卷35, 15a; 卷40, 20a; Boudarel 1988, 165-166; Tru'ong Bá Căn 1991, 64).

제2차 사이공조약을 통해 실제 教徒가 담당한 관직은 외국서적의 번역과 통역을 담당한 行人司 혹은 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2차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 협상에 참여했던 教徒 阮弘이 이미 行人司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본다면, 行人司라는 관직을 教徒가 담당하게 된 것도 2차 조약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寔錄』 第四紀, 卷50, 16ab; 卷53, 6b).²⁷⁾ 이 때 阮朝가 教徒를 行人司로 임명한 것에는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제1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하고 국가의 위기를 절감한 阮朝는 장기적인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실용적인 서구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우선 서구 서적의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²⁸⁾ 당시 재정이 부족했던 阮朝는 서구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베트남 현지의 教徒를 이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寔錄』 第四紀, 卷35 50ab; 卷53, 6a; Tru'ong Bá Căn 1991, 67). 또한 사제 阮有琚와 阮弘이 각각 하이즈잉의 商政使司와 商舶이 되었어도 그들은 실제 프랑스의 하이즈잉 商政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직도 阮朝와는 직접 상관이 없었다(『寔錄』 第四紀, 卷53, 45ab).²⁹⁾ 教徒의 관직 진출을 매우 꺼렸던 阮朝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관직을 주어야 했을 때, 이전부터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阮朝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行人司라는 직책을 주는 것으로 그치거나 혹은 阮朝 조정내의 관직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직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阮朝가 1875년 8월에 마련한 教徒의 應試 및 出仕에 관한 법규에서는 소재지의 里役이 應試 규정에 따라 教徒의 응시 자격을 인정하면 入試할 수 있

27) 이미 明命帝 시기부터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서구의 신부들에게 正七品 혹은 從七品에 해당하는 行人司를 관직으로 주었던 적이 있었다(『寔錄』 第二紀, 卷47, 15ab).

28) 이러한 노력 과정에 대해서는 陣荊和 1991, 45-74; Nguyễn Thế Anh 1981, 111-123 참조.

29) 프랑스의 督學 張永記도 1876년 베트남 북부를 여행하던 당시 하이즈잉에서 사제로서 參辦이란 관직에 근무하고 있던 卍(Cu)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기에서 언급한 阮有琚이다(Tru'ong Vinh Ky 1982, 20).

게 했다(『寔錄』 第四紀, 卷54, 10b-11a). 여기에는 文紳의 亂으로 피해를 당한 教徒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킨다는(嗣德帝, 「處分商舶承天府臣諭」, 『文集』, 卷1, 18a) 측면 외에 教徒의 관직 진출을 꺼려하던 阮朝의 입장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카톨릭 관리의 이름 옆에 나란히 '敎人'이라는 두 글자를 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사 教徒가 과거를 통해 관직을 획득한다고 해도 조정으로서의 그들을 다른 관리들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카톨릭 관리도 조정내의 體例 중에서도 특히 朝賀와 祭祀를 따를 것을 강조했다. 2차 조약의 제9조에서는 카톨릭 관리가 敎法을 어기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阮朝가 카톨릭 관리의 祭祀 의무를 명시한 것은 敎法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阮朝는 조약체결 과정에서는 教徒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카톨릭 관리의 종교 자유와 행동 원칙을 부정해 버렸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阮朝는 대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사이공 조약의 제9조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구책도 강구했다. 또한 프랑스 식민당국과 선교사들이 모두 阮朝의 2차 조약 제9조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더라도, 阮朝의 이중적인 카톨릭 대책은 일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Tuck 1987, 190, 193; Burel 1996, 28).³⁰⁾

I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의 분석 대상이었던 제2차 사이공조약 체결 시기를 전후한 阮朝의 카톨릭 대책을 살펴보았다. 제1차 사이공조약의 체결로 일시 안정을 찾은 듯한 카톨릭 문제는 가르니에 사건을 통해 教徒와 非教徒 사이의 불화와 갈등이 외면으로 거세게 표출되었다. 가르니에사건에서 非教徒의 반감을

30) 따라서 이후 베트남 침략을 재개한 프랑스 식민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의 이유로 제시한 것도 카톨릭 문제가 아니라, 嗣德帝 이후 혼란했던 阮朝의 왕위계승 분쟁이었다 (Nguyen The Anh 1978, 11-12).

더욱 고조시켰던 教徒가 文紳들을 중심으로 한 非教徒의 제1차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阮朝는 프랑스가 이것을 구실로 재차 공격한다면 국운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고 非教徒의 움직임도 阮朝의 권위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非教徒의 카톨릭 공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阮朝가 제2차 사이공조약의 카톨릭 조항 제9조를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종교 문제에 한해서는 이전처럼 프랑스 식민당국과 카톨릭 세력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용하기 곤란했던 카톨릭 조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는 최소화시켰다.

이처럼 북부 영토의 회복, 카톨릭 세력의 불만 완화, 文紳의 반발 억제 등을 통해 베트남 사회의 안정 및 부국강병을 모색하고자 했던 제2차 사이공조약 시기 阮朝의 카톨릭 대책은 프랑스 식민당국, 카톨릭 세력, 文紳 등을 대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嗣德帝 이후 계승분쟁으로 인한 阮朝의 와해와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강화는 阮朝의 카톨릭 대책과 프랑스 식민당국의 對教徒觀에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嗣德帝 이후 조정의 실권을 잡고 勤王運動을 주도했던 尊室說도 프랑스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미 제1·2차 사이공조약을 통해 프랑스의 침략이 강력해질 때마다 教徒의 '매국적인' 행동을 경험했던 尊室說은 嗣德帝 시기의 카톨릭 문제 처리 입장을 전면 수정했다. 尊室說이 教徒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전국에 지시했기 때문에 教徒 살해와 카톨릭 촌락 초토화는 嗣德帝 시기보다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당국의 입장은 이전과 달랐다. 가르니에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군이 카톨릭교도의 요구로 非教徒를 가혹하게 처벌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령지역을 관할하는 데에 教徒가 장애 요소였다는 것도 경험했다.³¹⁾ 따라서 勤王運動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非教徒의 공격을 받던 教徒가 신변 보호와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식민당국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당시 본격적인 베트남 식민지화 구상을 하면서

31) 이것은 당시 남당을 관리했던 아르망의 보고와 1874년 소송사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남부에서는 이미 1860년대부터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프랑스 식민당국과 선교단이 대립하고 있었다(Tuck 1987, 88-97).

베트남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프랑스 식민당국은 카톨릭교도의 무리한 배상 요구가 재차 베트남의 非教徒를 자극할 경우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 정책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카톨릭 문제로 인한 대외위기 상황과 국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많은 협상을 진행했던 嗣德帝 시기의 阮朝는 북부의 4省을 회복하기 위해 제2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 식민당국과 카톨릭 세력이 요구한 카톨릭 조항의 확충과 그에 대한 이중적인 운용을 통해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다른 한편 카톨릭 세력이 베트남 식민지 정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한 프랑스는 阮朝와의 협상과 베트남 현지 사회의 강력한 반카톨릭 분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차후 전개될 식민지 정책에서 카톨릭 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게까지 되었다.

<참고문헌>

- 『大南寔錄正編』 第一紀. 1968.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 『大南寔錄正編』 第二紀, 1971.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 『大南寔錄正編』 第四紀. 1977. 東京: 慶應義塾言語文化研究所.
- 『聖製文三集』. 1971. Sài Gòn: Tủ Sách Cổ Văn, Ủy Ban Dịch Thuật, Phủ Quốc Vụ Khanh Đặc Trách Văn Hóa Xuất Bản.
- 潘叔直 輯. 1965. 『國史遺編』, 香港中文大學新亞研究所.
- Trùng Vinh Ký. 1982. *Chuyển đi Bắc Kỳ Năm Ất-Hợi (1876)* [自述往北圻傳], S.O.A.S., Univ. of London.
- Taboulet, George. 1955. *La Geste Française en Indochine: Histoire par les textes de la France en Indochine des origines à 1914*, 2 tomes, Libraire d'Amérique et d'Orient.
- Tuck, Patrick. 1987. *French Catholic Missionaries and the Politics of Imperialism: A Documentary Survey*, Liverpool Univ. Press.
- 中國史學會 主編. 1957. 『中法戰爭(一)』, 上海人民出版社.
- Đỗ, Quang Hùng, 1990. *Một số Vấn Đề về Lịch Sử Thiên Chúa Giáo ở Việt Nam* [베트남 천주교 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Hà Nội: Trường Đại Học Tổng Hợp Hà Nội Khoa Lịch Sử.
- Nguyễn, Thế Anh. 1970. *Việt Nam thời Pháp đô hộ* [프랑스 지배 시기의 베트남], Sài Gòn: Lửa Thiêng.
- Phan, Phát Huân. 1958. *Việt Nam Giáo Sử* [베트남 교회사], quyển I (1533-1933), Sài Gòn: Nhà Tuyên-Úy.
- Trần Trọng Kim. 1992. *Việt Nam Sử Luợc* [베트남사략], 戴可來 譯, 『越南通史』, 北京: 商務印書館.
- Trần Văn Giàu. 1973. *Sử phát triển của tư tưởng ở Việt Nam* [베트남 사상의 발전], tập I, Hà Nội: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 Trương Bá Cần. 1991. *Nguyễn Trường Tộ(1830-1871) Tập I Con Người* [阮長祚 輯 인물], Trung Tâm Nghiên Cứu Hán Nôm.
- Brocheux, Pierre et Daniel Hémerly. 1995. *Indochine: La Colonsation ambiguë (1858-1954)*,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 Lê, Nicole-Dominique. 1975. *Les Mission-Étrangères et la Pénétration Française au Viêt-Nam*, Paris: Mouton.
- Tsuboi, Yoshiharu. 1987. *L'Empire Vietnamien face à la France et à la Chine 1847-1885*, Paris, L'Harmattan.
- Vo, Duc Hanh. 1969. *La Place du Catholicisme dans les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e Vietnam de 1851 à 1870*, 2 tomes, Leiden, E. J. Brill.
- Buttinger, Joseph. 1972. *Vietnam: A Political History*, New York-Washington: Prager Publishers.
- Cady, John F.. 1967. *The Roots of French Imperialism in Eastern A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 Harrison, Brian. 1968. *South-East Asia: A Short History*, New York.
- Marr, David. 1971.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 McLeod, Mark W. 1991. *The Vietnamese Response to French Intervention, 1862-1874*, New York: Prager.
- Nguyen, The Anh. 1978. *The Withering Days of the Nguyen Dynasty*, Research Notes and Discussions No. 7,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Roberts, Stephen H.. 1929. *History of French Colonial Policy(1870-1925)*, London: P. S. King, 2 Vols.
- SarDesai, D. R.. 1989. *Southeast Asia*, Westview Press, Inc..
- Steinberg, David et al.. 1985.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Univ. of Hawaii Press.
- Truong, Buu Lam. 1967. *Patterns of Vietnamese Response to Foreign Intervention, 1858-1900*,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 尹大榮. 1998. 「阮朝 嗣德帝 시기 對佛敎상에서의 카톨릭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ùi, Đình Phong-Đỗ Quang Hùng. 1988. "Trở lại một trang của cuộc khởi nghĩa vũ trang năm Giáp Tuất (1874)[甲戌年(1874) 武裝 起義의 한 페이지로 돌아가서]," *Nghiên Cứu Lịch Sử* [역사연구] 238-239.
- Burel, Laurent. 1996. "Hoạt Động Truyền Giáo của Pháp ở Trung kỳ và Bắc Kỳ (1856-1883)[베트남 중부와 북부에서의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 (1856-

- 1883)]," *Nghiên Cứu Lịch Sử* 284.
- Đào, Từ Minh-Đình Xuân Lâm. 1975.11.12. "Khởi nghĩa cờ vàng năm Giáp Tuất[甲戌年(1874) 黃旗 起義]," *Nghiên Cứu Lịch Sử* 165.
- Đặng, Huy Vận. 1968.7. "Về Cuộc đấu tranh của những người sĩ phu yêu nước chủ chiến chống triều đình đầu hàng xâm lược ở cuối thế kỷ XIX[19세기 후반의 侵略에 投降하는 朝廷을 반대하는 主戰愛國士夫들의 鬪爭에 대하여]," *Nghiên Cứu Lịch Sử* 112.
- Boudarel, Georges. 1988. "Un lettré catholique vietnamienne du XIX^e siècle qui fait problème: Nguyên Trương Tô," Alain Forest et Yoshiharu Tsuboi (eds), *Catholicisme et Société Asiatiques*, Paris: Éditions L'Harmattan.
- Cao, Huy Thuần. 1990. "L'expédition de Cochinchine: Une affaire catholique," *The Viet Nam Forum* 13, Ya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Nguyễn Thế Anh. 1981. "Tradionalisme et réformisme à la cour de Huế dans la seconde moitié du XIXe siècle," réunis par Pierre Brocheux, *Histoire de l'Asie du Sud-Est*, Presses Universitaire De Lille.
- McLeod, Mark W.. 1997. "The Scholars' Rising in Central Vietnam, 1874," *Crossroads* 11-2.
- 酒井いずみ. 1977. 「1870年代のベトナム社會と抗佛勢力」, 『歴史評論』 329.
- 陣荆和. 1991. 「嗣德帝時代ベトナムの近代化指向と香港」, 『創大アジア研究』 第12號.